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친환경적 홍수방지 종합대책 수립

문화·관광 야외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지역의 매력도 증진

사회·복지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환경·안전 '그린파크 그린델리' 캠페인을 통해 지역 녹지공간 확대 조성

도시교통 무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설치

도시계획·주택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공원 도시로 조성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로스앤젤레스	김민희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시아·아프리카〉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나이로비	한 울

〈유럽〉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바르셀로나	진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파리	김나래

친환경적 홍수방지 종합대책 수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 / 환경·안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는 약 28억 원 규모의 홍수 방지를 위한 단기대책을 수립. 2021년 말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로 도심지 침수 피해가 극심해지자 홍수 피해 원인 조사 및 친환경적 재난 대비 정책을 마련

수도권의 주요 홍수 피해 현황

- 2021년의 주요 호우
 - 2021년 12월 17일부터 쿠알라룸푸르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발생
 - 쿠알라룸푸르의 1년 평균 강우량은 2,400mm지만 12월 18일 하루에 한 달 평균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
 - 17일부터 8개 州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자 최소 54명, 이재민 12만 5천 명 발생
 - 피해는 특히 쿠알라룸푸르 인근 슬랑고르州와 중부지역인 파항州에 집중. 사망자 발생 지역은 말레이시아 수도권인 클랑벨리(25명), 파항州(20명), 클라탄州(3명)
 - 2021년 12월 중순부터 2022년 1월까지 홍수 피해 규모는 61억 링깃(약 1조 7,600억 원)으로, 공공자산 훼손(20억 링깃·약 5,800억 원), 가옥 피해액(16억 링깃·약 4,600억 원), 상업 관련 피해액(5억 링깃·약 1,400억 원), 제조업 분야 피해액(9억 링깃·약 2,600억 원) 등을 기록
- 2022년의 주요 호우
 - 2022년 3월 7일과 4월 25일에 작은 규모의 홍수 피해 발생
 - 3월 7일 내린 폭우로 쿠알라룸푸르에 홍수가 발생해 도심 6개 지역이 피해
 - 4월 25일 폭우로 쿠알라룸푸르 일부 지역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 발생
 -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세 차례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
- 수도권 인근의 홍수 피해 원인
 - 제도 미비
 - 야당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도시 배수시설을 개선해 장마철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가 무시했다고 비판
 - 수도권의 하천과 교량 등 구조물 설계가 부실하고 펌프장 등 내수배제(內水排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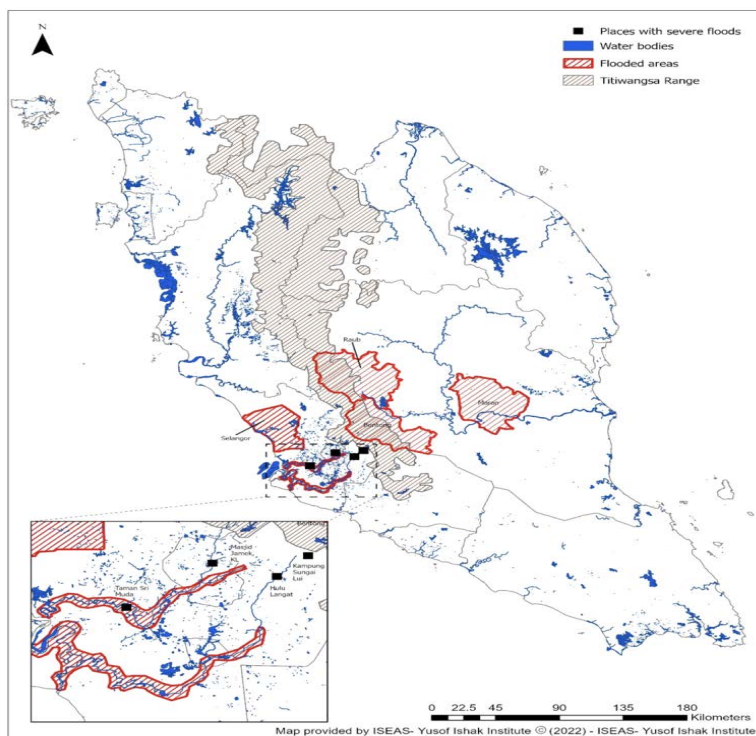
부족하다는 지적

-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및 기술적 체제가 미흡하고 피난체계가 부족해 인명피해를 가중
- 기상변화
 - 매년 10월~3월 북동부 몬순(monsoon)으로 말레이반도 동부에 폭우가 발생하지만 기후 변화로 수도권에 위치한 말레이반도 서부에 피해가 발생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남
 - 전문가들은 대기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일부 도시가 침수될 수 있다고 주장
 - 1인당 말레이시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5.44톤에서 2020년 8.42톤으로, 2020년 기준 싱가포르(7.78톤), 인도네시아(2.16톤)보다 높은 수치
- 난개발로 인한 재해취약성
 -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홍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기상학자 니스파리자 박사는 산발적 도시 재개발로 재해요인이 증가해 저지대는 침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
- 수도권 인근 도시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포함
 - 거버넌스 및 정치학 센터(Centre for Governance and Political Studies, Cent-GPS)가 2019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쿠알라 슬랑고르 등 수도권 인근 해안 도시는 2030년까지 침수돼 사라질 것으로 추정
 - 침수 지역에는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비롯한 국가 시설이 있음

쿠알라룸푸르市, 홍수방지 종합대책 마련

- 홍수방지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2022(Flash Flood Mitigation Action Plan 2022) 수립
 - 2022년 5월 9일 쿠알라룸푸르市는 수도권 인근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천만 링깃(약 28억 6천만 원) 규모의 단기대책인 '홍수방지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2022'를 수립
- 홍수 피해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말레이시아 기상관측소의 자료에 따라 수도권 상습 도로침수 지역 25곳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
 - 공공사업기관(IKRAM)과 연계해 12개월간 상습 홍수피해지역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할 계획

- 지방정부 차원의 홍수 피해 예방대책
 - 노후 배수 시설물 보수·보강, 홍수 발생 시 견인차 배치, 워터 펌프(water pump) 및 배수가 뛰어난 쇠석매트릭스아스팔트 설치, 도로침수 지역 주차 단속원 및 교통 경찰 배치, 배수시설 추가 설치, 홍수 대비 모래주머니 설치, 재난 문자 안내
- 시민 차원의 홍수 피해 예방대책
 -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캠페인 운영,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쓰레기 제로존 확대, 배수구 쓰레기 수거 운동 등



[그림] 2021년 12월 슬랑고르주와 파랑주의 홍수 피해지역

<https://www.sinardaily.my/article/171084/malaysia/exclusives/recent-floods-linked-to-massive-urbanisation>

<https://www.thesundaily.my/opinion/will-kl-become-a-flooding-city-like-jakarta-IC9235291>

<https://www.straittimes.com/asia/se-asia/parts-of-kuala-lumpur-flooded-after-non-stop-downpour>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dbkl-implements-14-interim-measures-tackle-flash-floods>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야외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지역의 매력도 증진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드 시티 / 문화·관광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데이드 시티(City of Dade City)는 하트 형태의 금속 조형물과 건초 더미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실시. 지역에 예술적 감성을 입혀 도시의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둠. 市는 향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데이드 시티 아트센터와 협력하여 진행 시기, 주제,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

데이드 시티(City of Dade City)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Take Heart'

-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드 시티는 야외 공공예술 작품 전시를 통해 도심과 지역 전체에 대한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높이고자 'Take Heart' 프로젝트를 진행
 - 데이드 시티 아트센터(Dade City Center for the Arts)와 市가 협력해, 市를 가로 지르는 하디 트레일(Hardy Trail)을 따라 3D 금속 하트 조형물을 영구적으로 설치
 - 공공예술 작품 전시를 활용한 'Take Heart'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도시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의 매력도 제고가 주목적
-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
 - 지역 예술가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市에 위치한 Pasco-Hernando State 대학의 공예과 학생들이 하트 조형물을 제작
 - 또한, 지역 내 자동차 수리 업체가 악천후에도 조형물이 건널 수 있도록 하트 조각의 코팅을 담당하였으며, 현지 건설회사가 약 36인치 × 36인치 × 8인치 크기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2021년 5월 시민들에게 공개
 - 각각의 하트 조형물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예술가와 작품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와 작품의 의미 등 정보를 제공

市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Take Heart'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데이드 시티 아트센터는 또 다른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Hay Bale'을 2021년 가을에 진행하였으며, 큰 건초 더미가 지역 예술가들의 캔버스 역할을 수행

- 현재 데이드 시티 아트센터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디 트레일(Hardy Trail)에서 보이는 건물 외부에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
 - 市 관계자들은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건기를 장려하는 유인책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진] 하트 조형물과 건조 더미를 활용한 공공예술 작품

<https://lakerlutznews.com/ln/2021/05/88043/>

<https://lakerlutznews.com/ln/2021/10/92768/>

<https://www.dadecityarts.com/>

박 해 진 통신원, hj2201@ufl.edu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인 홍콩은행(HongLeong Bank)은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 방안을 추진. 중앙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촉감을 개선한 지폐를 발행. 홍콩은행은 말레이시아 최초로 점자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

배경

- 말레이시아 시각장애인 접근성 현황
 -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수행한 국가시력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구 80만 명이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었고, 9만 5천 명을 시각장애인 인구로 추산
 - 전체 인구의 2.44%가 시력 상실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0.29%가 시각장애인 이지만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은 부족
 - 말레이시아 최초의 점자 표기가 있는 음료수 자판기는 2021년에 등록
 - 음료수 자판기 업체인 ATLAS Vending은 말레이시아시각장애인협회(Malaysian Association for the Blind, MAB)와 협업해 2021년 쿠알라룸푸르 LRT 인근에 11개 점자 음료자판기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젝트 시행
 - 자판기용 점자 표시를 만들고 자판기 이용 방법을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지폐 투명창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투명창 제작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1링깃, 5링깃, 10링깃, 20링깃, 100링깃 신권(新券) 발행
 - 1링깃 지폐와 5링깃 지폐 앞면에 구멍을 낸 뒤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막아둔 투명창을 제작
 - 1링깃 지폐는 말레이시아 전통 직물인 송켓(Songket) 문양의 투명창
 - 5링깃 지폐는 말레이시아 식물인 술루 카창(Sulur Kacang) 문양과 코블새과 가운데 하나인 혼빌(Hornbill) 문양의 투명창

- 이밖에 모든 지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기
 - 1링깃 지폐는 좌측 하단에 가로 직선으로 표시
 - 5링깃 지폐는 좌측 하단에 세로 직선으로 표시
 - 10링깃 지폐는 좌측 하단에 가로 직선 2개로 표시
 - 20링깃 지폐는 좌측 하단에 세로 직선 2개로 표시
 - 50링깃 지폐는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2개로 표시
 - 100링깃 지폐는 좌측 하단에 세로 직선 3개로 표시
- 시각장애인의 은행권(銀行券) 액면(額面) 식별의 어려움 개선
 - 현금 사용의 불편함 해소
 -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촉감으로 지폐를 확인하지만, 지폐가 오래 사용돼 닳으면 점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 발생
 - 말레이시아 지폐 1링깃과 5링깃의 투명창은 촉감과 모양이 다른 지폐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식별하는 데 유용
 - 또한 투명창에 쓰인 폴리프로필렌은 쉽게 마모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현금 사용 편의성 제고

장애인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 민간은행인 홍룡은행(HongLeong Bank)은 장애인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 홍룡은행은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에 말레이시아 최초로 점자·음성 ATM 설치
 - 시각장애인 인구가 많은 쿠알라룸푸르 브릭필즈(Brickfields)와 페낭 풀라우티 쿠스(Pulau Tikus)에 점자·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TM 설치
 - 음성 서비스는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되며 잔액 확인, 비밀번호 변경, 이체, 현금 인출 등 4가지 기능 가능
 - 홍룡은행은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ATM 운영 프로젝트를 연구



[그림] 지폐 좌측 가운데 투명창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액면 식별 어려움 개선



[사진] 흥륜은행이 설치한 말레이시아 최초의 점자·음성 ATM

<https://www.malaysianow.com/news/2021/03/22/the-struggles-of-the-sightless-in-a-society-blind-to-their-woes/>

<https://www.nst.com.my/lifestyle/heal/2021/11/744356/reducing-barriers-faced-visually-impaired>

<https://www.bnm.gov.my/-/rm1-fourth-series-polymer-banknote-june-2012>

<https://ringgitplus.com/en/blog/bank-news/hlb-installs-talking-atms-in-brickfields-pulau-tikus-for-visually-impaired-customers.html>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그린파크 그린델리’ 캠페인을 통해 지역 녹지공간 확대 조성

인도 델리 NCT¹⁾ / 환경·안전

델리 NCT 정부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크 그린델리’라는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도시 공간구조로 재편하고자 함. 특히 주거지 중심의 녹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기관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을 조성 중임

정책적 배경

- 델리 NCT 지역은 경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이 우선시되어온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2015년부터 약 6만 그루의 나무가 도시개발을 위해 공식적으로 벌목됐으며, 이로 인한 열섬효과 심화와 대기오염 악화로 주거환경이 더 나빠짐
-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 또는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생활밀착형 편의공간 제공이 요구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그린파크 그린델리(Green Park, Green Delhi)’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 내 전체 녹지공간을 총괄 관리하고자 함
 - 델리 NCT 정부 조사 결과, 지역 내 총 1만 6천여 개의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그 중 6,300개 공원이 별도의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
- 지역 자치기관에 해당하는 주민복지협회(Residents' welfare association)의 녹지공간 개발·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개발자치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형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녹지공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진행할 경우 1에이커²⁾당 26만 루피(약 4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기준 준수와 비용 집행을 포함하여 감독할 예정
 - 지역 주민복지협회는 E-구역(E-district)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신청 가능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2) 아드파운드법(yard pound法)을 기준으로 1에이커(acre)는 4,046.8제곱미터(m²)의 면적

- 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물 공급 및 배수시설 설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에이커당 35만 루피(약 580만 원)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
- 신규로 녹지공간을 개발할 경우에는 델리녹지협회(Delhi parks & gardens society)를 통해 추가로 1에이커당 10만 루피(약 170만 원)를 추가 지원 예정
- 지역 내 1천 개 호수와 수역(水域) 주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1차적으로 지역 내 20개 호수 권역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 지역 전체 호수에 ID를 할당하여 매핑(mapping) 작업을 통한 조사 완료
 - 주요 호수에 대한 하수 배출, 폐기물 처리 등의 재정비를 진행하고, 호수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니터링과 개선사항도 적시 처리 예정
- 별도로 기존 유희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진행
 - 대표적인 사례로 Badapur 지역의 폐발전소 부지에 대한 대규모 녹지 공원화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에코공원(Eco park)으로 조성하고 있음

정책 평가

-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단체에 개발 자율권을 부여하여 거주지역의 특색에 맞는 녹지 공간을 개발 또는 유지 보수하도록 하여 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 조성에 기여
- 지역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환경오염 대표도시에서 품격 있는 그린도시로의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govt-to-revive-20-lakes-minister-101653417689209.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lt-governor-asks-ntpc-to-ready-eco-park-in-badapur-by-2022-101631713198149.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govt-draws-out-plan-to-beautify-delhi-s-gardens-and-parks-101653330796657.html>

<https://www.theprint.in/india/delhi-govt-launches-scheme-to-provide-financial-assistance-to-rwas-for-development-of-parks/968087/>

<https://www.theprint.in/india/delhi-rwas-to-get-rs-1-lakh-each-to-develop-park-in-their-area/967714/>

<https://www.thewire.in/government/delhi-allowed-over-60000-trees-to-be-cut-for-roads-buildings-metro-between-2015-and-2021-report>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무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설치

말레이시아 페낭주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친환경 이륜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9곳을 설치한다고 발표. 또한 고령화도시인 페낭주는 재난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2030년까지 탄소 발자국 50% 줄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음

배경

- 기후위기 취약 사회로 진입
 - 도시 고온화 현상
 - 도시기후변화연구네트워크(Urban Climate Change Research Network, UCCRN)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페낭주는 200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낮은 도시에서 2050년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도시가 될 전망
 - 페낭주 최저 온도(고도 3.3m 기준)는 2015년 24.8℃에서 2017년 25.1℃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26.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폭염 대비 지원 정책 필요성 증대
 - 노인 인구가 많은 페낭주는 폭염이 체온조절 기능이 약한 노인의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비한 지원 정책 필요성 증대
 - 2020년 기준 페낭주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집계. 2040년까지 페낭주 노인 인구 비율은 26.2%로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을 전망
 - 공중보건아시아태평양저널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말레이시아 노인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연간 10만 명당 1명이었으나 2080년에는 연간 10만 명당 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홍수 피해 위험 도시
 - 말레이반도 서해안의 페낭섬과 본토인 스브랑 프라이(Seberang Perai) 지역으로 구성된 페낭주는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재해취약지역
 - 2017년 페낭주 홍수 사태는 41차례를 기록해 2015년(20차례)보다 2배 증가
 - 이에 페낭주는 말레이시아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홍수 피해를 완화하고 녹지 대를 조성해 도시 온도를 낮추는 기후적응전략(Climate Adaptation Plan)을 추진

친환경 이륜차인 전기 오토바이 지원책 확대

-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
 - 페낭주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발자국을 50% 줄이는 목표를 포함한 페낭비전 2030(PenangVision 2030)을 발표
 - 페낭주 의회는 2015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10대를 구비하고, 배달업체의 엔진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독려
 - 그러나 페낭주에 등록된 이륜차 100만 대 가운데 전기 오토바이 점유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 무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9곳 설치
 -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증가해 오토바이 운행량이 급증하면서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설치
 - 페낭주 정부는 2022년 6월 8일 최초로 무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를 3곳(Astaka Persiaran Gurney, Padang Kota Lama, Askata Batu Lanchang)에 설치하고 추가로 충전소 6곳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
 - 오토바이 충전소에 전기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편의 제공
- 민간 기업과 연대
 - 페낭주 민간 전기 오토바이 기업인 Eclimo는 배달업체에 전기 오토바이 50대를 제공하고 州정부의 무료 충전소 이용방법을 설명해 운전자의 영업비용 감소에 기여



[사진] 2022년 6월 8일 페낭주 정부가 설치한 무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https://www.thestar.com.my/news/focus/2020/06/28/providing-for-an-ageing-population>

<https://paultan.org/2022/06/08/penang-introduces-e-motorcycle-charging-stations-free-for-public-use-nine-locations-across-the-island/>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공원 도시로 조성

인도 델리 NCT / 도시계획·주택

델리 NCT 지역 내 약 3,000에이커의 17개 도시 숲 지역과 18,000여 개의 공원을 최첨단 시설로 개발하여 델리 NCT 지역을 세계적인 공원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개발 사업을 2021년 12월부터 진행

배경

- 델리 NCT 지역에는 현재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약 18,000개의 공원과 정원이 존재
 - 델리 NCT 지역에는 약 3,000에이커 면적의 17개 도시 숲 지역이 있음
 - 각 지역의 녹지 담당 부서 및 기관에서 공원을 관리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음
- 델리 NCT 정부는 델리를 현대적이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델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델리@2047이라는 플랫폼을 구축
 - 델리@2047은 대화 및 개발 위원회(DDC)¹⁾가 주도하는, 2047년까지 델리 NCT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 및 자선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아래와 같은 비전을 설정
 - 델리 NCT의 1인당 국민소득을 싱가포르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
 -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갖추 2048년 올림픽 유치, 개최
 - 깨끗한 공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하고, 100% 전기차로 전환
- 도시공원을 더욱 매력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 존재

목표

- 델리 NCT 정부는 공원에 대한 공통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생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

1) DDC(The Dialogue and Development Commission, 대화 및 개발 위원회)는 델리 NCT 정부 산하 최고의 싱크탱크로, 델리 NCT가 직면한 주요 개발과제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사람 중심적인 솔루션을 찾아 델리 NCT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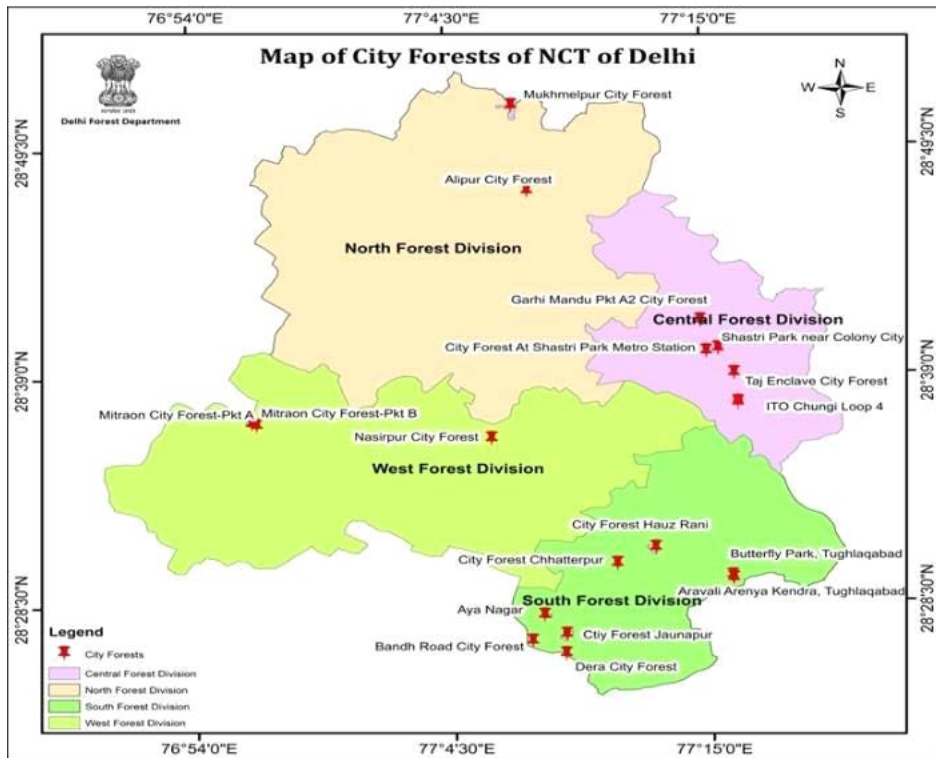
- 녹지공간 설계와 유지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세계적 수준의 공원 도시로 전환시키려는 델리 NCT 정부의 계획

- 대화 및 개발 위원회(DDC), 델리 공원 및 정원 협회(DPGS), 주민복지협회(RWA)²⁾,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자선 단체 간의 협업으로 진행
- 델리 공원 및 정원 협회(DPGS)는 공원과 정원의 유지 관리를 위해 주민복지협회(RWA)와 비정부기구(NGO)에 재정을 지원
 - 델리 NCT의 녹지 확충 및 유지를 위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에이커당 약 330만 원~400만 원 지원
 - 하수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에이커당 약 460만 원 지원
- 최첨단 시설로 갖춰진 공원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공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
 - 2021년 12월부터 3년 동안 1단계 계획 진행
- 델리 NCT 내의 약 1,500개 공원은 450개 주민복지협회(RWA)와 협력하여 재개발을 진행 중
 - 주민복지협회(RWA)와 델리 NCT 지역 의원의 협력으로 500에이커의 공원 지역을 델리 공원 및 정원 협회(DPGS)가 개발 중
- 델리 NCT 정부는 5,000개의 공원을 개발하는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이 공원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델리 NCT 정부는 각 지역의 주민복지협회(RWA)의 도움을 받아 18,000여 개의 공원 중 16,828개 공원을 조사 분석할 계획
 - 현재까지 6,396개 공원을 조사 분석한 결과, 3,565개 공원이 평균 수준 이하로 나타남
- 공원 내 필수적으로 설치될 시설물
 - 적절한 조도의 조명, CCTV,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놀이기구 공간
 - 야외 체육관, 지붕과 좌석이 있는 정자
 - 산책로와 조깅 코스, 자전거 트랙
 - 다양한 종류의 토종 나무, 꽃 및 관목

2) RWA(Resident Welfare Association, 주민복지협회)는 인도 도시 내 각 지역(행정동 단위)의 주민 이익을 대표하는 비정부 조직

- 퇴비제조장, 빗물 집수장, 관개용수 시설



[그림] 델리 NCT 지역 내에 있는 17개의 도시 숲과 녹지대 분포도



[사진] 세계적 수준의 이상적인 공원의 예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delhi-govt-to-develop-3000-acres-of-land-into-parks-cm-seeks-dpr-within-15-days/articleshow/90408566.cms?from=mdr>

<https://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22/mar/24/govt-to-develop-3000-acres-of-land-into-parks-2433614.html>

<https://ddc.delhi.gov.in/community-parks-and-gardens/>

<https://ddc.delhi.gov.in/delhi2047/>

https://dpgs.delhigovt.nic.in/sites/default/files/All-PDF/RWA_guideline.pdf

http://web.delhi.gov.in/wps/wcm/connect/DoIT/delhi+govt/search+results/Results?cx=005353914135659445069%3Awt_bv4tf_ja&cof=FORID%3A9&ie=UTF-8&q=park+and+garden&sa=Search

세계도시동향 제529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7월 2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